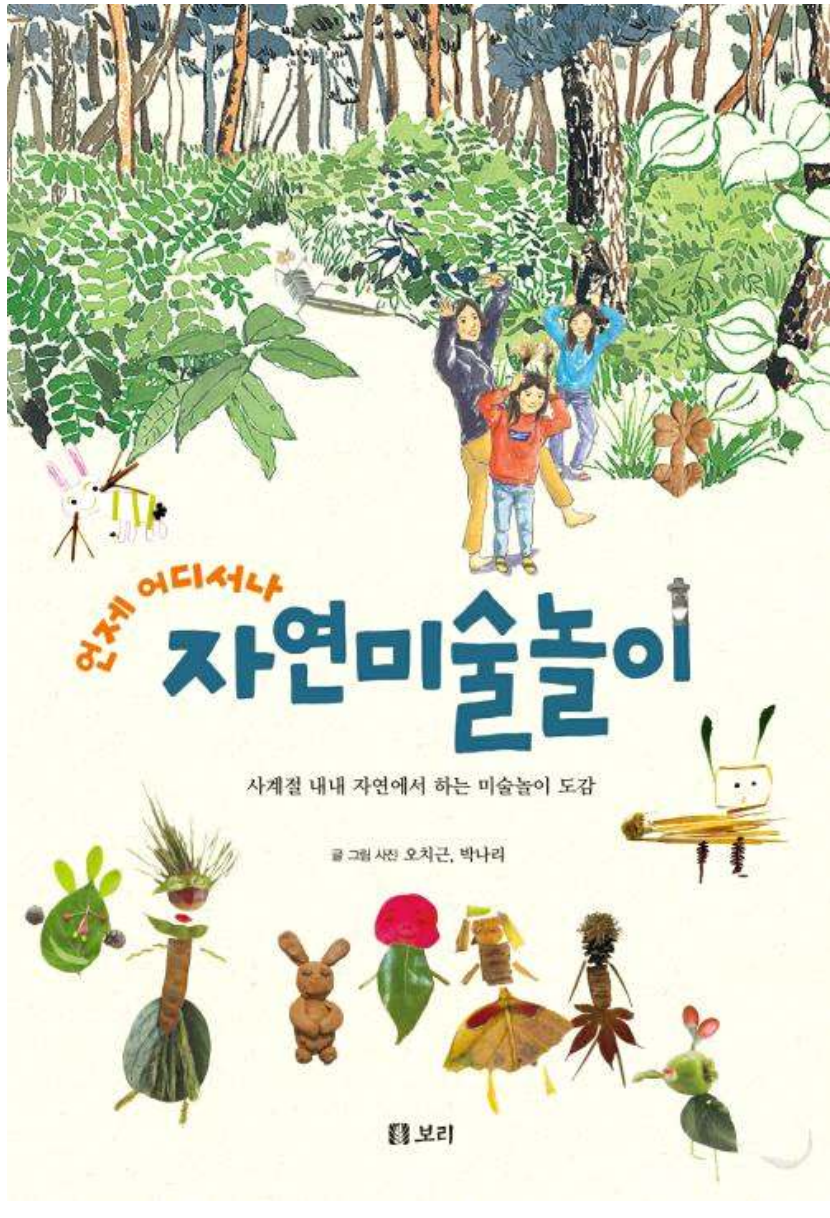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책 정보

- ◎ 서명: (언제 어디서나) 자연미술놀이 : 사계절 내내 자연에서 하는 미술놀이 도감
- ◎ 오치근, 박나리 [공]글 · 그림 · 사진
- ◎ 발행자: 보리
- ◎ 발행년: 2020
- ◎ 청구기호: J 598-오819즈

책 내용

자연미술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요

자연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면 자연과 어우러진 창작물이 나오게 됩니다. 언 땅을 녹여 주고, 새싹을 움트게 만드는 봄비가 우리 손에서 알록달록 ‘물 그림’이 되고, 곱게 핀 동백꽃은 손가락마다 피어난 인형이 됩니다. 큰 이파리 위에 작은 이파리를 겹쳐서 놓으면 할아버지가 되고, 머리에 갈대를 꽂으면 인디언 추장이 됩니다. 땅바닥에 나뭇잎을 총총총 놓아서 우리 마을 모습을 그리고, 열매를 모아 내 얼굴도 꾸며 봅니다. 뜨거운 햇볕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줄줄 흘러가는 냇물이, 모두 우리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자연미술놀이를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자연미술놀이는 정해진 놀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재료는 무궁무진하고, 그만큼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늘 보던 틀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새로운 모양을 찾아 냅니다. 처음 길만 열어 주면 자연에서 끊임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자연미술놀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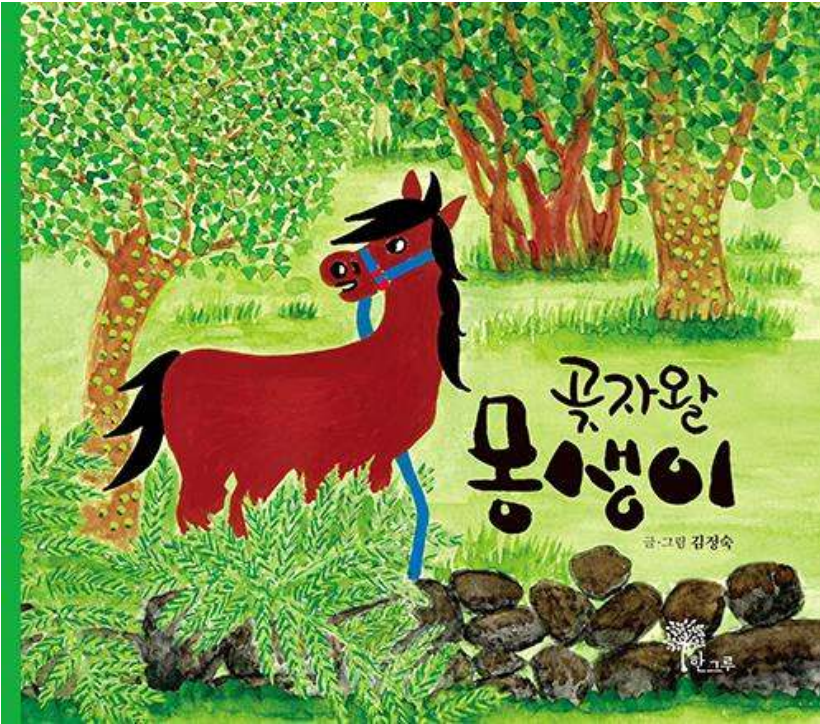
책 정보

- ◎ 서명: **곶자왓 몽생이**
- ◎ 김정숙 지음
- ◎ 발행자: 한그루
- ◎ 발행년: 2020
- ◎ 청구기호: J 813.8-김73ㄱ

책 내용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신비의 숲 곶자왓, 그리고 강인한 지구력으로 유명한 제주의 말 몽생이가 그 주인공이다. 몽생이는 마순이를 사이에 두고 마돌이와 힘을 겨루며 티격태격하는 말썽꾸러기다. 그런 몽생이가 곶자왓로 달려가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곶자왓 숲에서 콩짜개덩굴처럼 동글동글한 마음이 되어 마돌이와 사이좋은 친구가 되는 이유는 뭘까. 곶자왓 숲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곳일까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다.

자연의 신비, 우정과 사랑을 담은 이야기에 저자가 직접 그린 그림이 더해져 싱그러운 그림책으로 꾸며졌다. 뒤쪽에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제주 곶자왓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여러 생명을 품은 곶자왓의 생태계와 그 특징을 사진과 함께 실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책 정보

- ◎ 서명: 오, 미자!
- ◎ 박순 글·그림
- ◎ 발행자: 노란상상
- ◎ 발행년: 2019
- ◎ 청구기호: J 813.8-박57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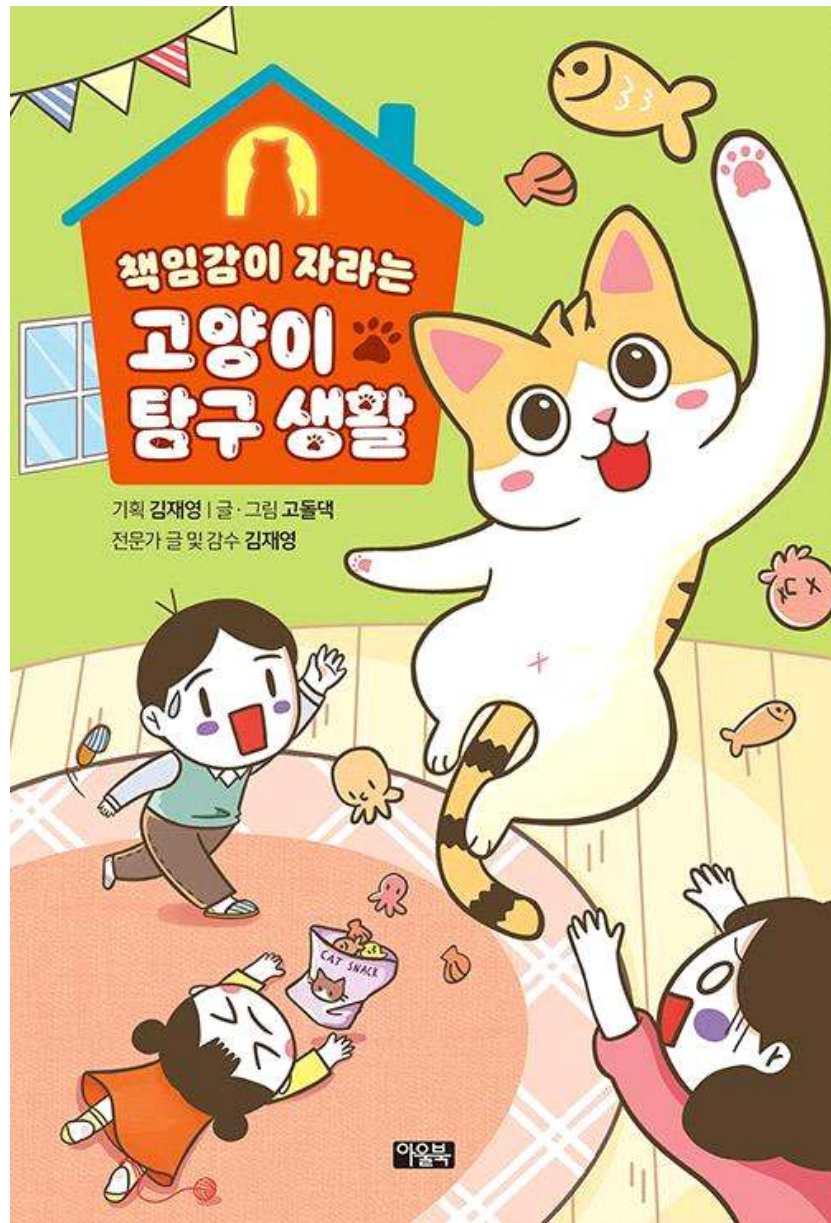
책 내용

<오, 미자!>에 등장하는 다섯 ‘미자’ 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건물 청소부, 스텐트우먼, 택배 기사, 전기 기사, 이사도우미로 활동하는 이들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미자’ 열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의 찌푸린 시선에 쓴맛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부당한 차별이나 누군가의 손가락질에 매운맛을 보여 주고 싶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미자’ 들을 그 정도로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맛을 맛본 뒤 느끼는 달콤함이 더 소중한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달콤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땀 흘려 일합니다.

그림책 <오, 미자!>는 노동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존재와 생동감을 느끼는 이 세상의 모든 미자들을 위해 응원의 박수와 위로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책 정보

- ◎ 서명: (책임감이 자라는) 고양이 탐구 생활
- ◎ 고돌댁 글·그림
- ◎ 발행자: 아울북 :북이십일
- ◎ 발행년: 2020
- ◎ 청구기호: J 527.4786-고225 7

책 내용

《책임감이 자라는 고양이 탐구 생활》은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그린 만화 파트와 반려동물 양육 정보를 담은 정보 파트로 구성됐다. 만화 3개 에피소드마다 관련 내용을 다룬 정보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짜여졌다. 실제로 반려묘를 기르고 꾸준히 반려동물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 온 만화가가 그려, 반려동물과 살 때 맞닥뜨리는 다양한 사건 사고 및 현실적 고충이 독자에게 생생히 다가온다.

식단?배변?건강 관리 등 누구나 알아야 할 기초 지식, 아무거나 물어뜯고 할퀴는 등 반려묘를 기른다면 한번쯤 마주치는 문제 상황의 원인과 대처법을 다뤘다. 얼떨결에 길고양이 요미와 살게 된 연아네 가족의 고군분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반려묘 키우기의 기초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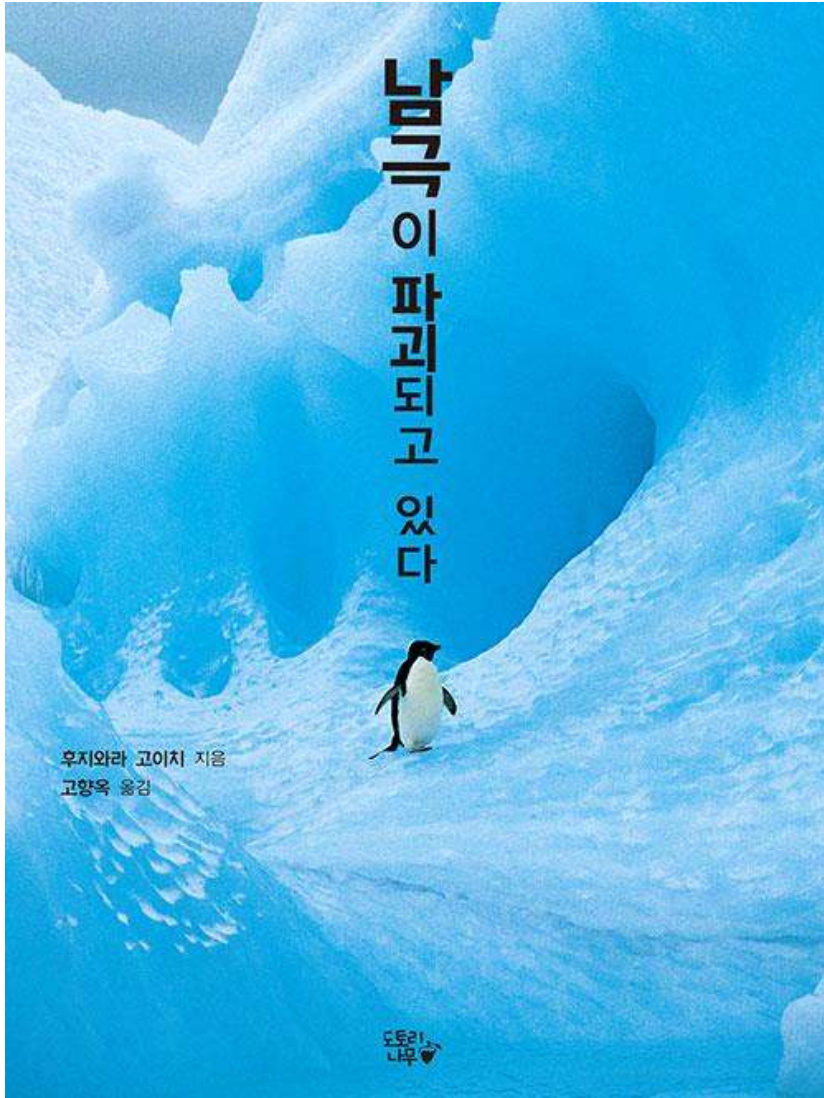
책 정보

- ◎ 서명: 남극이 파괴되고 있다
- ◎ 후지와라 고이치 지음 ; 고향옥 옮김
- ◎ 발행자: 도토리나무
- ◎ 발행년: 2020
- ◎ 청구기호: J 539-후79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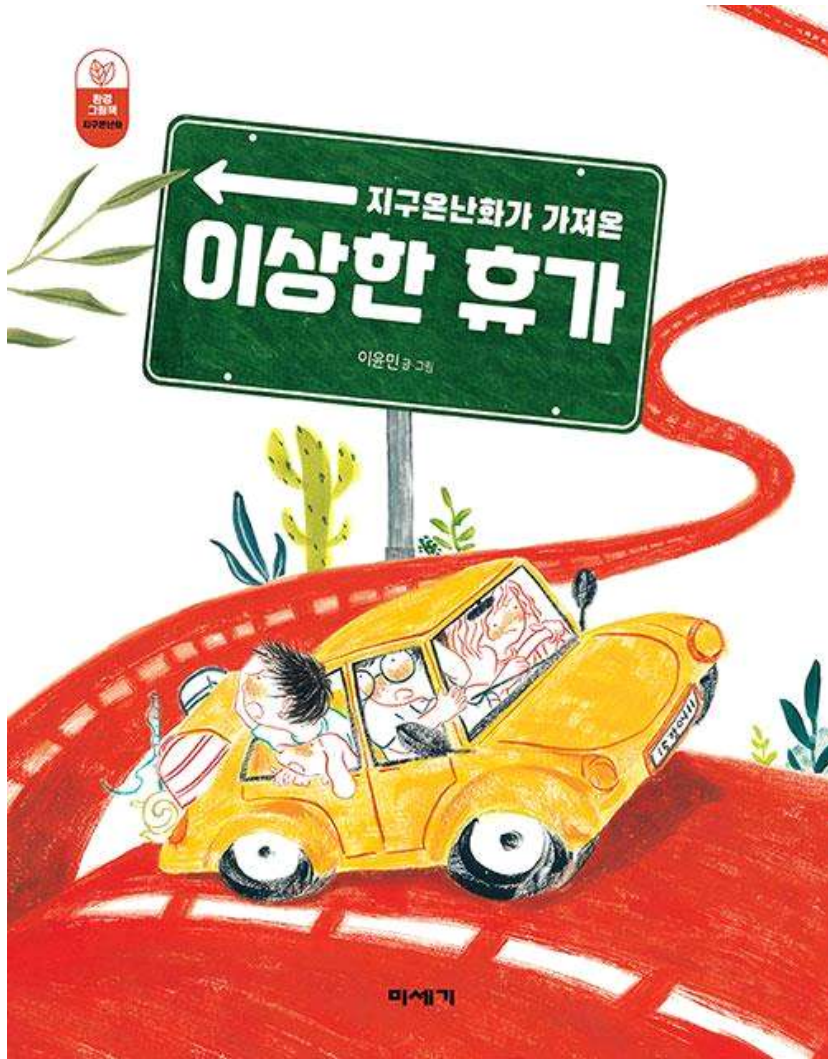
책 내용

생생하게 찍은 지금 남극의 모습과 펭귄의 사진을 통해 위험에 놓인 남극과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사진으로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펭귄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지구가 파괴되고, 다음은 우리 인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남극이 파괴되고 있다>는 남극과 펭귄을 통해 우리에게 환경 파괴 문제와 보전과 우리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

책을 쓴 사진가 후지와라 고이치 씨는 환경 사진 저널리스트로, 야생 생물의 생태와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사진을 찍고 있다. <남극이 파괴되고 있다> 책도 그림이 아닌 사진으로 구성하여 실제 야생 펭귄의 모습과 남극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책 정보

- ◎ 서명: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이상한 휴가
- ◎ 이윤민 글·그림
- ◎ 발행자: 미세기
- ◎ 발행년: 2020
- ◎ 청구기호: J 539.92-이670

책 내용

울이 가족의 이번 여름휴가는 너무 이상해요. 물놀이를 하러 신나게 달려간 계곡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바짝 말랐습니다. 바다로 갔더니 거기도 이상합니다. 바닷물이 노을에 물든 것처럼 빨강게 물들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아주 엉망인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울이 가족에게 벌어진 일은 지구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가 생겼고, 갑자기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거나 또 가뭄이 생기거나 해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재난을 다음 사람이 겪고 있는 꼴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이상한 휴가》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벌어지는 사례들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전합니다. 울이 가족의 엉망진창 여름휴가를 함께하다 보면 지구온난화는 무엇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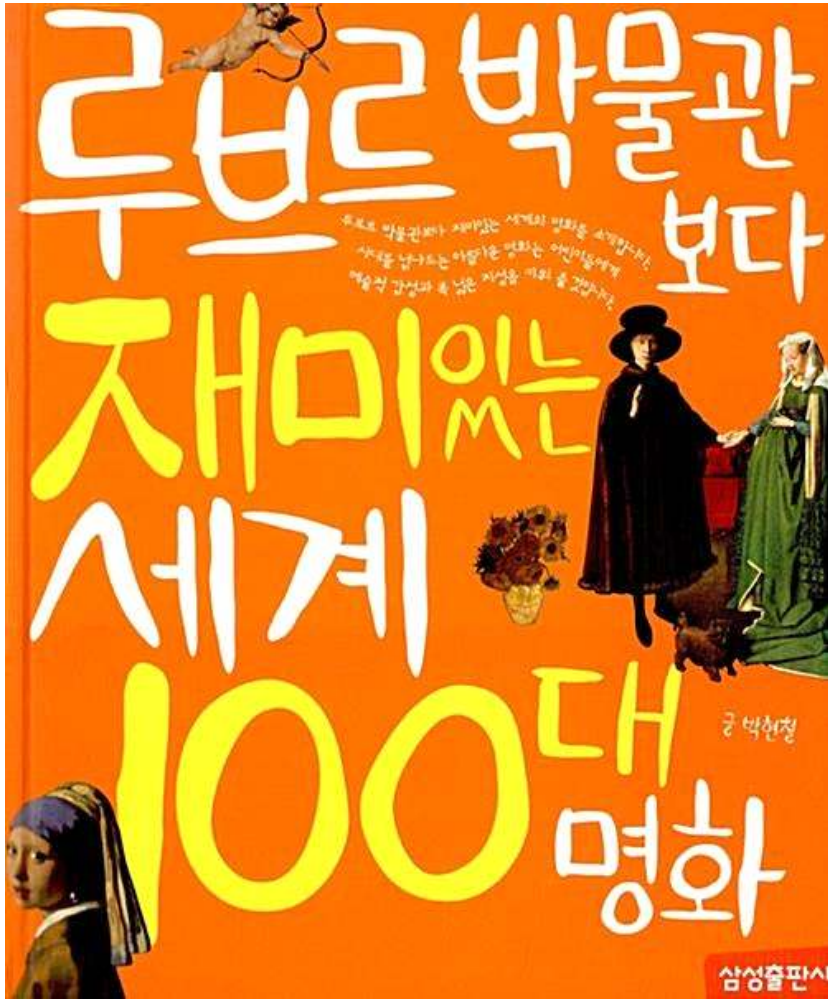
책 정보

- ◎ 서명: 루브르 박물관보다 재미있는 세계 100대 명화
- ◎ 박현철 글
- ◎ 발행자: 삼성출판사
- ◎ 발행년: 2011
- ◎ 청구기호: J 653-박94ㄹ=2

책 내용

〈모나리자〉의 미소는 왜 이렇게 신비로울까?, 〈아담의 창조〉에서 손가락을 맞대는 두 사람은 누구일까?, 은하수를 왜 밀키웨이(milky way)라고 할까? 세계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명화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 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화가가 그림 한 편에 수많은 이야기를 숨겨놓기 때문이죠.

그럼 역시 보는 눈을 키우면서 읽어야 하는 한 편의 스토리입니다. 시각적 이미지에 민감한 아이들에게는 글이 아닌 그림으로 신화와 전설, 역사적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으며 아이들은 그림을 보는 안목과 그림을 둘러싼 맥락을 읽으며 한 점의 그림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책 정보

- ◎ 서명: 만년샤쓰
- ◎ 방정환 글 ; 장정희(해설) 지음 ; 김세현 그림
- ◎ 발행자: 길벗어린이
- ◎ 발행년: 2020
- ◎ 청구기호: J 813.8-방73ㄱ

책 내용

<만년샤쓰>는 방정환의 대표작이면서 한국 아동문학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가난한 소년 창남이가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언제나 웃으면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오랜 세월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 그리고 진한 감동을 전해 주고 있지요.

전문가의 해설(방정환연구소장 장정희 박사)을 더해 그동안 가난한 소년의 가슴 찡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던 동화 <만년샤쓰> 곳곳에 숨겨진 시대적 상황, 의미, 방정환 문학의 특징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창남이’ 라는 개성적 인물을 통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을 꿈꾸고 실천하게 하는 한국 아동 문학사의 보석 같은 동화 <만년샤쓰>를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다시 만나 보세요.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노란집



박
완
서

열림원

책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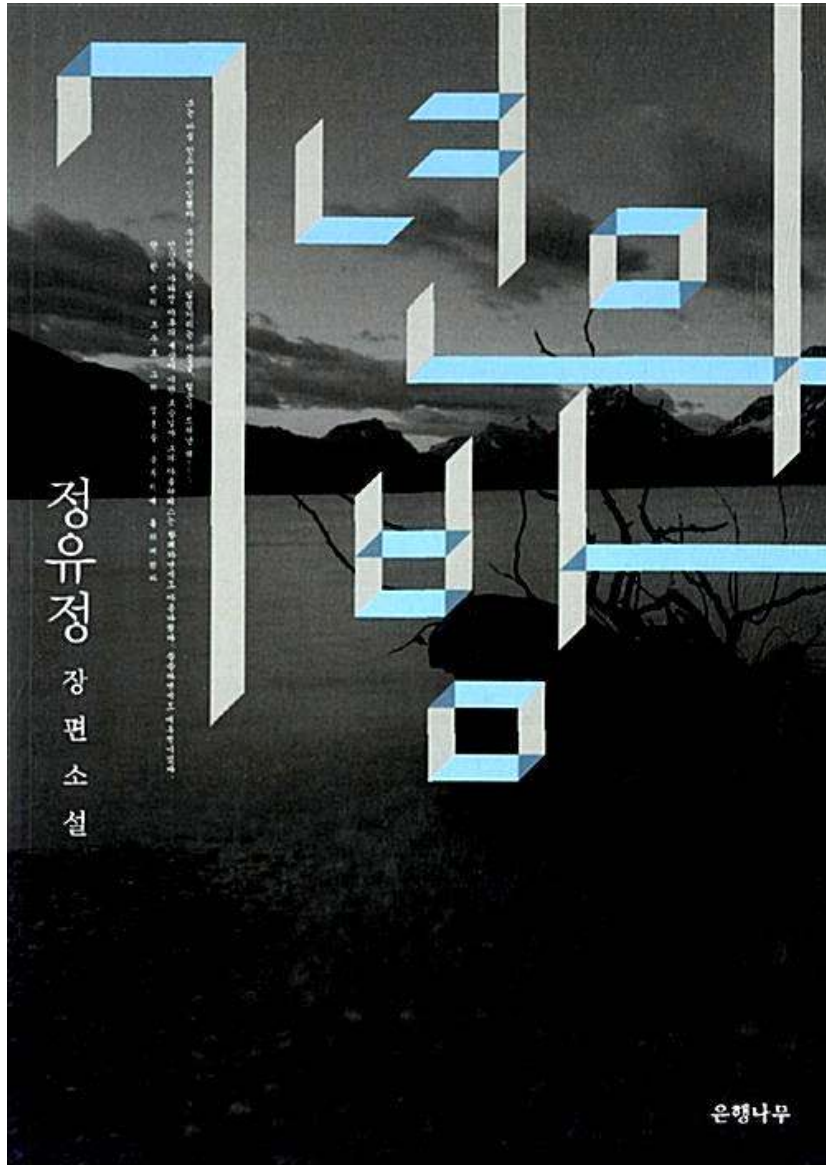
- ◎ 서명: 노란집
- ◎ 박완서 지음; 이철원 그림
- ◎ 발행자: 열림원
- ◎ 발행년: 2013
- ◎ 청구기호: 813.7-박66ㄴ

책 내용

박완서, 그가 살아온 ‘노란집’에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숨겨진 보석 같은 소설들. 짙은 소설들 한 편 한 편 속에 생을 다 옮겨다놓은 듯한 이야기들은 마치 작가가 옆에서 동화를 들려주는 것처럼 느낌이 생생하다. 여기에 더해진 글 사이사이의 일러스트들은 일상의 피로를 잔잔하게 어루만지면서 삶의 여유와 따스함을 전달해준다.

우연히도 이 『노란집』은 고 박완서의 82회 생일을 기리는 때에 출간되었다. 제목처럼 바로 이 ‘노란집’에서 작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사연들을 들려주어왔다. 『노란집』에서 어머니 품 같은 온화한 글들, 그 문장 하나하나를 마주대하는 것만으로 그리운 작가의 모습이 비추인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책 정보

- ◎ 서명: 7년의 밤 : 정유정 장편소설
- ◎ 정유정 지음
- ◎ 발행자: 은행나무
- ◎ 발행년: 2011
- ◎ 청구기호: 813.705-정67츠

책 내용

뒤돌아보지 않는 힘있는 문장, 압도적인 서사, 생생한 리얼리티
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 수상작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와 제5회 세계문학상 수상작 《내 심장을 쏴라》작가 정유정의 신작 장편소설 《7년의 밤》(은행나무刊)이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수상 이후 오랜 시간 집필에만 몰두하여 내놓는 결과물로, 7년의 밤 동안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어난 슬프고 신비로우며 통렬한 이야기를 치밀한 사전 조사와 압도적인 상상력에 힘입어 펼쳐놓은 소설이다.

독자의 눈을 잡아끌고 정신을 홀리는 매력은, 작가가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인간의 본성을, 심연을 들여다본다’는 의도에서 기인한다. 작가 고유의 짜릿한 문장과 탄탄한 캐릭터 설정, 물 썰 틈 없는 세계관으로 직조된 이 작품은 심해에서 수면으로 솟구치는 잠수부의 혈떡이는 심장처럼 숨가쁜 서사적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책 정보

- ◎ 서명: 너무 아름다운 꿈 : 최은미 소설
- ◎ 최은미 지음
- ◎ 발행자: 문학동네
- ◎ 발행년: 2013
- ◎ 청구기호: 813.7-최68ㄴ

책 내용

최은미의 소설들은, 선부른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사방이 짝 막힌 이곳의 삶,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저 받아들이라고 체념을 말하지 않는다. 이 삶이 비극이라고 말하는 최은미의 소설이 절망적이거나 허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비극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비극이기 때문이다.

출근길, 운구행렬을 자주 마주친다. 갑작스레 터지는 꽃망울이 아니라, 운구행렬을 보며, 봄이 왔구나, 짐작하는 날들이 있다. 꽃샘추위의 찬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봄기운을 감지한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급작스레, 다가온다. ‘너무 아름다운 꿈’ 이라는 이 역설은, 그래서 살아볼 만하고, 그래서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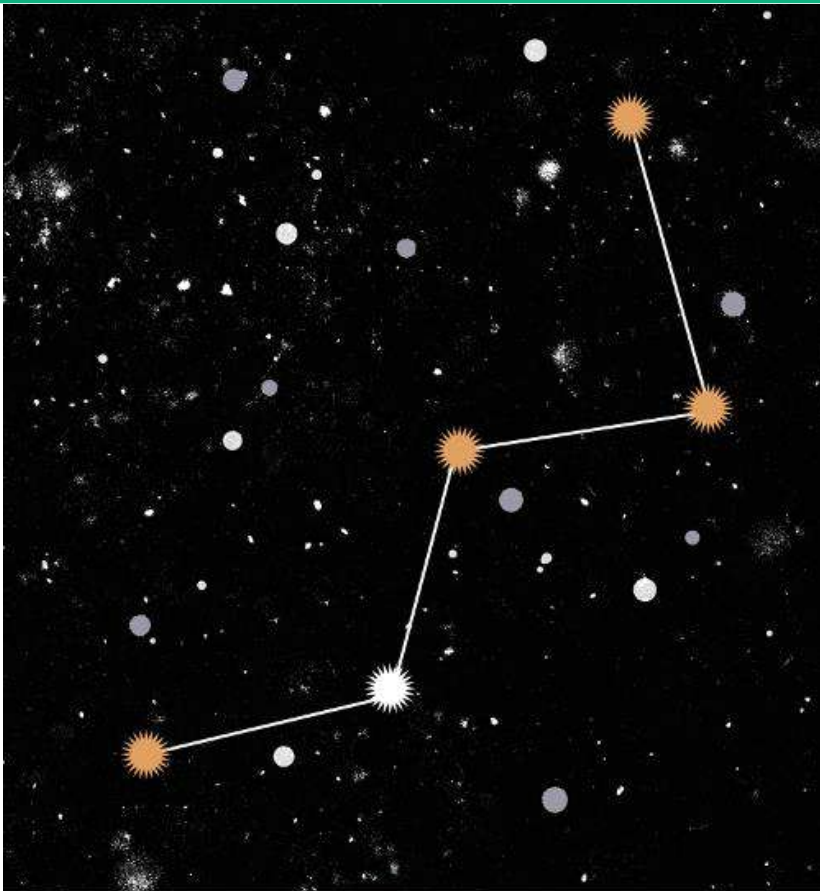
책 정보

- ◎ 서명: 이제야 언니에게 : 최진영 소설
- ◎ 지은이: 최진영
- ◎ 발행자: 창비
- ◎ 발행년: 2019
- ◎ 청구기호: 813.7-최79ㅇ

책 내용

신동엽문학상,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고, 섬세한 감수성과 거침없는 서사로 한국문학에서 주요한 자리를 획득한 작가 최진영이 창비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장편 시리즈 '소설Q'의 첫번째 작품으로 신작 소설 <이제야 언니에게>를 출간했다. 주인공 '이제야'의 일기 형식으로 전개되는 이번 소설은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내밀한 의식과 현실을 정면으로 주파한다.

「문학3」 온라인 지면을 통해 연재할 당시, 독자들로부터 '이 소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한다' '가해자 중심의 언어를 되살려서 보여주는 끔찍하고 슬픈 이야기에 감탄한다' 등의 찬사를 받았던 작품을 완전히 새롭게 탈고하였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삶이 무서워서 얼어붙은 사람에게 서슴없이 다가가서"(황현진 발문) 그들의 입장에서 발화하는 최진영의 빛나는 용기가 소설을 읽는 내내 독자의 마음을 등대처럼 비춘다.



이제야 언니에게

최진영 소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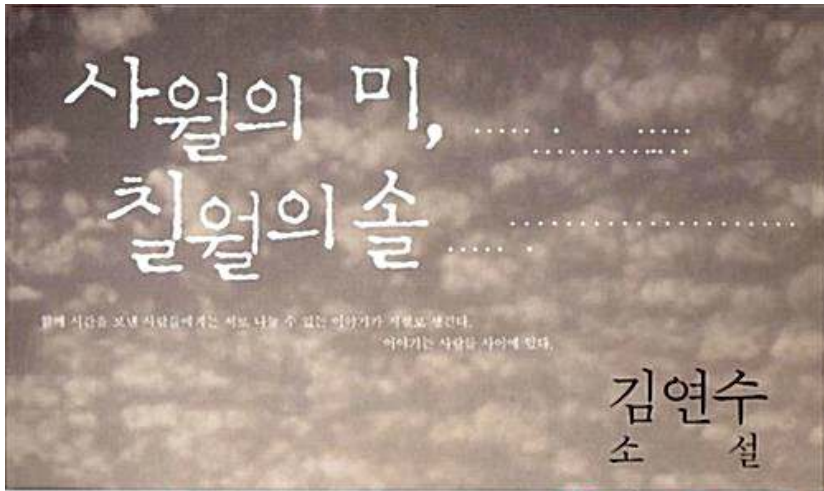
책 정보

- ◎ 서명: 사월의 미, 칠월의 솔 : 김연수 소설
- ◎ 김연수 지음
- ◎ 발행자: 문학동네
- ◎ 발행년: 2013
- ◎ 청구기호: 813.7-김64사

책 내용

좋은 서사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김연수는 답한다. “글을 왜 쓰느냐 하면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최대한 노력했을 때 그 사람이 겪었던 일을 쓸 수 있으므로 우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지만, 늘 실패한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글을 쓸 수 있다. 독자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좋은 이야기란,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삶과 고민과 나를 둘러싼 세계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독서란 자신이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다.” (문학동네 팟캐스트_문학 이야기)

사랑하는 이의 어깨에 몸을 기대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기대는 일이다. 그래야 기대는 쪽도 의지가 되는 쪽도 불편하지 않다. 이제, 그의 커다란 귀를 열어둔 소설에 마음을 기댈 시간이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여행의 이유



김영하 산문



책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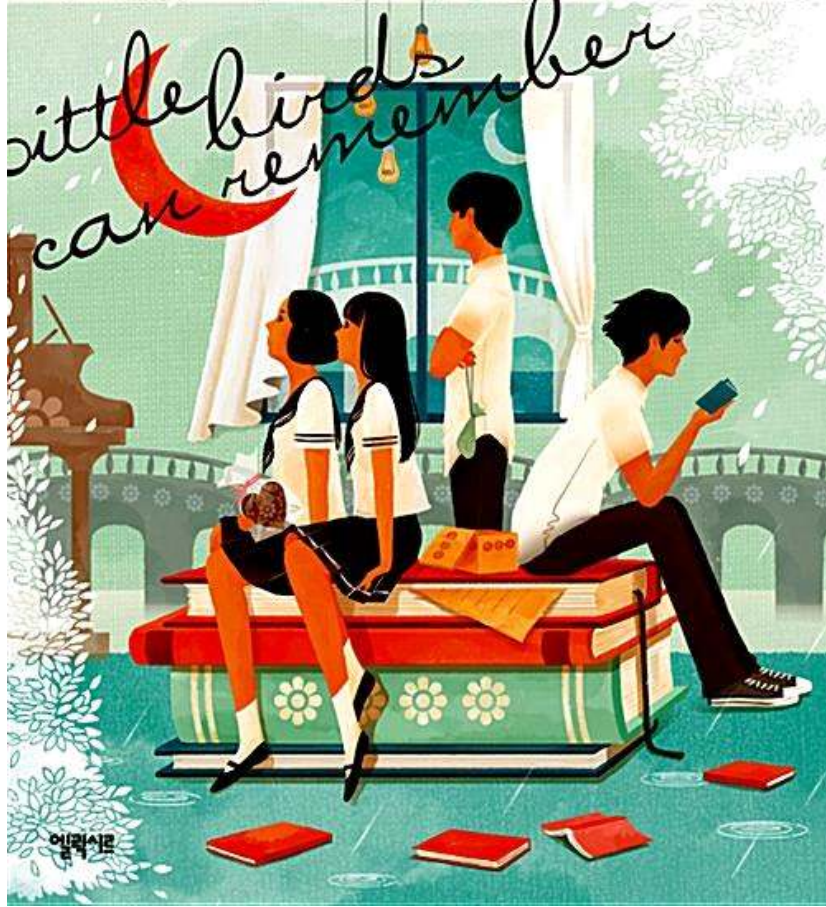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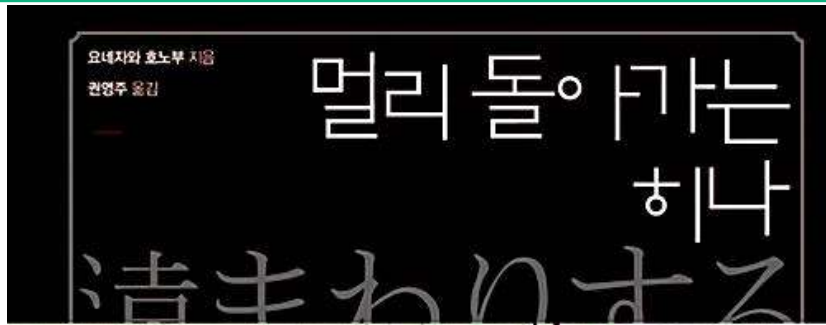
- ◎ 서명: 여행의 이유 : 김영하 산문
- ◎ 김영하 지음
- ◎ 발행자: 문학동네
- ◎ 발행년: 2019
- ◎ 청구기호: 814.7-김64ㅇ

책 내용

『여행의 이유』는 작가 김영하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홉 개의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이다. 여행지에서 겪은 경험을 풀어낸 여행담이기보다는, 여행을 중심으로 인간과 글쓰기, 타자와 삶의 의미로 주제가 확장되어가는 사유의 여행에 가깝다.

작품에 담긴 소설가이자 여행자로서 바라본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놀랄 만큼 매혹적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떠올렸을 법한, 그러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던 상념의 자락들을 끄집어내 생기를 불어넣는 김영하 작가 특유의 (인)문학적 사유의 성찬이 담겼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책 정보

- ◎ 서명: 멀리 돌아가는 히나
- ◎ 요네자와 호노부 지음 ; 권영주 옮김
- ◎ 발행자: 엘릭시르
- ◎ 발행년: 2014
- ◎ 청구기호: 833.6-요213ㄱ

책 내용

고전부 시리즈 네 번째 권. 고전부 시리즈는 고등학교의 특별 활동 동아리 '고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수께끼를 해결해 나가는 학원 청춘 미스터리 소설이다.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발표하는 작품마다 호평을 얻는 작가 요네자와 호노부의 데뷔 시리즈이자, 애니메이션 [빙과]의 원작 소설이기도 하다.

시리즈 네 번째 권에 해당하는 <멀리 돌아가는 히나>는 <빙과>의 봄부터 <바보의 엔드 크레딧>의 여름, <쿠드라프카의 차례>의 가을을 지나 이듬해 4월까지, 고전부의 지난 일 년을 담았다. 학교 괴담을 추리로 풀 '해야 할 일은 간략하게', 헛간 탈출 대작전 '새해 문 많이 열려라', 초콜릿 도난 사건을 다룬 '수제 초콜릿 사건', 히나마쓰리에 얽힌 소동을 그린 '멀리 돌아가는 히나'를 비롯해 총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이 달의 북큐레이션, 1월 새해에 읽고 싶은 책

책 정보

- ◎ 서명: 세계의 끝 여자친구 : 김연수 소설
- ◎ 김연수 지음
- ◎ 발행자: 문학동네
- ◎ 발행년: 2009
- ◎ 청구기호: 813.6-김64

책 내용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쉽게 위로하지 않는 대신에 쉽게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다.

세계의 끝 여자친구

이웃 속에 머물다가
그런 순간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 기이한으로 그들은 빛을 향해
떨어져 버린 것이다.

김연수
소설

